



FoMo

Forced Mobiliz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Summer 2020

Vol. 15

제1회 강제동원 UCC공모전 대상 수상

강제 동원의 아픔이 서린 제주 ‘다크투어리즘’ 어때요?

다크투어리즘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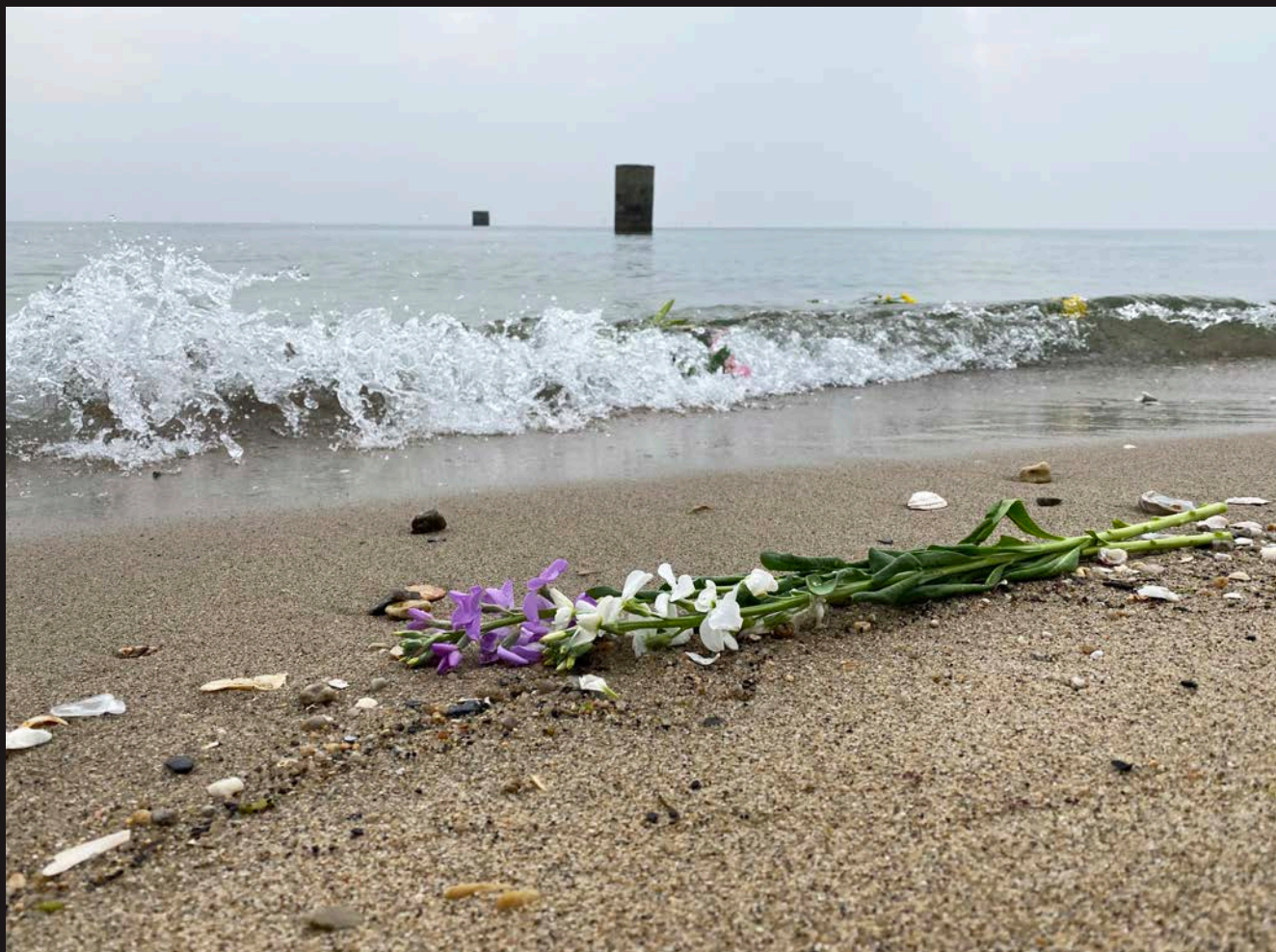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원혼^{冤魂}의 바다에

꽃을 던지며

황 동 준
(시인, 재단 운영관리국장)



얼마나 답답하세요
무너진 갯도 겹겹의 억장
젓빛 바다마저 덮고 있으니

78년
그리 쉽지 않은 세월
얼마나 더 견디셔야 할까요

바닷속 깊은 막장
머리 위로 들려오는
고기배 지나가는 기관 소리

오늘은
당신께 더 가까이 오라고
바닷물이 빠지는군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추모의 발걸음 들리시나요

침묵의 분노
간절한 염원
추모의 발걸음 위안이 되시는지요

영령이시여!
귀향의 빛이 비칠 때까지
부디 편안하소서!





2020. 2. 1.
일본 아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추모식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개요 | 1942년 2월 3일 탄광 갱구에서부터 약 1,000m, 수심 37m 지점에서 침수 발생하여 탄광 전체가 수몰되는 사고 발생. 총 183명 사망.(조선인 강제동원 노무자 136명, 일본인 47명, 舊위원회 피해신고 70여 건)

FoMo

Forced Mobilization

CONTENTS



PHOTO ESSAY 원혼冤魂의 바다에 꽃을 던지며

- 06 유족지원사업
- 08 위패관 '기억의 터' 개관식
- 10 강제동원을 말하다
- 12 제1회 강제동원 UCC 공모전 시상식
- 14 개관 5주년 기획전
- 16 국제학술대회
- 18 도슨트 소식
도슨트 인터뷰
- 20 신규 체험교육 '별 헤는 밤' 소개
- 21 언론보도
- 22 역사관 유물 수집 안내
재단 출판사업 안내



유족지원사업 그간의 성과

2020년 유족지원사업 접수 마감, 9월중 200명에게 지원금 지급 예정
2018년과 2019년 총 322명에게 지원금 지급 성과

글 이병희

유족지원사업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

- 2012. 3. • 포스코 이사회 100억원 재단 출연 의결
- 2014. 6.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 2016. 8. • 포스코 1차 30억원 출연
- 2017. 12. • 포스코 2차 30억원 출연
- 2018. 5.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특별·자문위원회 유족지원방안 보고
- 2018. 10.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회 의결
- 2018. 10.~ 12. • 미귀환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 유족 56명 지원(시범사업)
- 2019. 6. • 유족 정보 활용 관련 자문회의(유족정보 이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
- 2019. 10. • 중장기 기금 이자 수익금 활용방안 마련(유족지원사업 원칙 마련)
- 2019. 1.~ 2020. 2. • 미귀환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 및 자녀 유족 266명 지원 (사업확대)

고지한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한 유족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가 6월말로 완료되었다. 9월중에 부족한 서류 추가 요청과 정리, 선정 등을 통해 200명에게 약 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귀환희생자의 생존 배우자를 대상으로 했던 2018년과 2019년 하반기 희생자의 자녀에게 지급했던 사업의 연장 사업으로, 지원금 지급 수령자 선정은 사망으로 인해 수령의 기회가 없어지는 고령자와 저소득자를 우선하는 등, 공정한 지원 방침을 세워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지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의 협력을 얻어 1순위 유족 가운데 연령순 상위 200명에게 신청 안내서를 보냈다.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소였지만 91건이 도착하였는데, 이 중에는 유족 당사자가 생존하여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유족의 자손들이 수령한 경우가 많았다. 전화로 연락해 온 유족은 53건으로 생존자는 20명이었다. 생존 당사자나 사망 유족의 다른 유족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번 유족지원사업은 포스코가 출연한 기금의 최근 3년간의 이자 수입, 청소년 모임과 여러 단체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모두 322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우리 재단은 한·일 과거사 청산의 출발점으로 청구권 수혜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이자수익으로 유족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내 기금조성과 유족지원사업수행을 통해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의 관심 제고와 향후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함으로써 추도, 학술연구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유족 지원을 통한 유족 위로와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유족지원사업 Q&A

Q 2020년 유족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 A 해당 사업은 포스코 출연금 이자 및 기부금을 재원으로 실시
- A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선정 방안 모색
- A 지원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1순위 유족)로 제한

Q 신청 대상은?

- A 미귀환(현지 사망, 행방불명)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 자녀가 해당
- A 한 희생자의 복수 유족 중복 수령은 제한

Q 지원금 지급 방법은?

- A 개별 안내 후 계좌이체로 지급
- A 지급 대상 이외의 신청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Q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 A 1순위 : 90세 이상 유족
- 2순위 : 85세 이상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 85세 이상 유족 중, 차상위계층
- 4순위 : 80세 이상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 5순위 : 그 외 유족 중 고령자 순
- ※ 각 순위 내 선정 기준은 고령자 순(법정 생년월일 기준)

Q '신청인 확인서' 작성 이유와 주요 내용은?

- A 필수 제출 서류 중 '신청인 확인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자 마련한 방안
- A 지원금 약 50만원, 중복 지급 제한
- A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의 법률상 권리의 행사가 아님
- A 해당 사업이 어떠한 유족, 단체 등과 관계가 없음을 확인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떠도는 ‘넋’

새로운 안식 ‘기억의 터’에서 슬픔을 치유하다...

글 하태현 | 사진 장민성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었다가 유골 한 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패관 ‘기억의 터’가 지난 6월 19일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5층에 문을 열었다.

재단은 ‘기억의 터’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역사관 4층 로비에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송기인 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홍순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박수영 부산 남구 국회의원,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대행사를 자제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기념식장에서는 위패관 조성 경과보고가 이뤄졌고, 이어 위패관으로 이동해 테이프커팅과 관람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역사관 옥상 추모탑으로 이동해 헌화와 묵념, 기념촬영을 끝으로 개관식은 막을 내렸다.

재단은 일제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국비 8억여 원을 들여 역사관 5층에 ‘기억의 터’를 조성했다. ‘기억의 터’는 1,097㎡(330평) 공간에 최대 4,000여 위의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815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또한 중앙조형물, 평화의 소녀상 및 강제징용 노동자상 홀로그램, 강제동원 피해자 기증사진(복제본), 추모영상 등이 설치돼 있다.

한편, 재단은 향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를 추가로 안치하기 위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억의 터’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낮 12시, 오후 2시 ~ 4시(월요일 휴관)
※ 코로나19로 인한 부분개관으로 1일 2회 선착순 입장(회당 300명)
- 유의사항 : 출입 시 발열 검사, 방명록 기입, 마스크 착용 필수
- 관람 및 주차 : 무료
- 관람문의 : 051-629-8600



시모노세키 인근 해저탄광 강제동원

“코로, 입으로 새까만 탄가루… 도망가다 붙잡히면 죽도록 맞아”

글 하태현 | 사진 장민성

신영현(94 · 申榮見) 옹은 1926년 7월 21일 경남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에서 태어났다. 열다섯 살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개안리로 이주해 농사일을 했다. 1943년 봄 일본 아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시 인근에 있던 탄광에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후 귀환했다.

Q. 어떻게 강제동원 되셨나요?

열일곱 살이던 1943년 봄에 들에서 가족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먼 직원이 찾아와 (따라)가자고 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입은 옷처럼 그대로 먼 직원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부산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낮에 기차를 타서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갔습니다.

Q. 강제동원 되었던 곳은 어디였나요?

시모노세키에서 멀지 않은 어느 탄광으로 갔습니다. 탄광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이름과 주소는 모릅니다. 우리 기숙사에 함께 수용된 조선인이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Q. 탄광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탄광에서 바다 밑에까지 철로를 따라 구루마(수레)를 타고 죽 내려가요. 철로를 놓아서, 전기로 해서, 한참을 내려가면 바닥에 다다르는데, 무너지지 않게 나무기둥을 세워놓았어요. 그때는 전국(일본) 각지에서 바다 밑에 탄광이 있었어요. 머리에 착용하는 전등과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굴에 들어가 탄을 캐어요. 그때는 마스크도 없어서 콤프레셔로 바람을 내어서 굴을 뚫으니까 코로, 입으로, 목구멍으로 탄가루가 새카맣게 넘어왔습니다. 천으로 된 모자를 쓰다 보니 갱도 안에서 여기저기 머리를 부딪쳐 다치는 일이 많았고, 배도 많이 고했습니다.

Q. 탄광에는 일본인 탄부도 있었나요?

탄부는 조선인 밖에 없었고, 감독관은 일본인이었어요.

도망가다 잡혀오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죽을 만큼 두들겨 뺐어요. 겁을 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아부하는 조선인은 감독을 시키기도 했어요.

Q. 하루에 얼마나 일하셨나요?

시간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침에 밥을 먹고 들어가면 탄광 안에서 주먹밥 같은 걸로 점심을 먹고, 밤에 기숙사로 돌아왔으니 12시간은 넘었을 겁니다. 밤에 나오면 목욕을 시켜줍니다. 씻고 나서 저녁을 먹고 잤어요.

Q. 급여는 받으셨나요?

월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도망갈 때는 돈이 십 원(한 푼)도 없었어요. 월급을 얼마 준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돈은 없었어요.

Q. 탄광에서는 얼마나 지내셨나요?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배고프고 힘들어서 조선인 2명과 함께 도망을 나왔어요. 그 중 한 명은 서른 살 정도 되었어요. 밤에 이불을 사람이 자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탄광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울타리는 판자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 못이 험거운 곳들이 있었어요. 울타리 너머는 호를 파놓았는데 호 안에는 물이 사람 목 높이까지 차 있었어요. 세 명에서 서로 밀어주고 건져 올리면서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탄광을 빠져나와서는 길을 물으면서 도망을 갔는데, 농사꾼(일본인)들은 탄광에서 도망을 나왔다고 짐작을 해도 고발하지 않아서 무사히 도망을 갈 수 있었어요.

Q.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나요?

경비가 긴 몽둥이를 들고 순찰을 돌았는데, 도망가다 잡혀오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죽을 만큼 두들겨 뺐어요. 겁을 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다 죽어도 사고로 처리하면 그뿐이었습니

Q. 탈출한 뒤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대로는 한꺼번에 다 잡힐 수 있으니, 나눠서 도망가자고

해서 세 명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침 모래를 모아서 파는 일을 하는 조선인을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 일자리를 찾아서 먼저 와 계시던 형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답장에 “내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그 집에 있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형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형님이 근무하던 전투비행장 부대장 명의의 여행 증명서와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기차를 타고 구마모토 현(규슈 소재)에 있는 전투비행장 공사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곳에서 트럭을 모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Q. 해방 후 곧바로 귀환하셨나요?

해방되어도 배를 못 구해서 바로 귀환하지는 못했어요. 구마모토는 밀감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밀감을 떼다가 팔면서 3개월 정도 더 지냈어요. 밀감을 팔러 히로시마까지 갔었는데, 원폭 피해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전봇대가 엇가락처럼 녹아내린 것도 봤고, 송장 냄새가 지독하게 났어요. 시체는 갈고리로 찍어서 구덩이에 부었는데, 조선인, 일본인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1945년 겨울에 마산을 통해 귀환해 가족이 있는 황해도로 돌아왔습니다.

Q.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일본정부는 세계 각국에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강제동원 UCC 공모전 수상작 7점 선정



‘강제동원의 아픔이 서린 제주...’

박주영씨 대상

부산 분포중학교 배건희 학생에게

특별상 수여

글·사진 장성환

재단은 지난 5월 26일 회의실에서 ‘제1회 강제동원 UCC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UCC공모전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참여로 총 16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작품은 강제동원의 아픔과 역사적 의미 등을 다룬 다양한 주제였으며, 드론을 이용한 촬영과 인터뷰,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 촬영 기법이 활용되기도 했다.

접수된 16점의 작품에 대해서는 1차 기본심사와 2차 작품심사를 거쳐 총 7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1차 기본심사에서는 내용 및 활용 자료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고 2차 작품심사에서는 역사적 사실성과 창의성, 활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박주영 씨가 출품한 「강제동원의 아픔이 서린 제주 ‘다크투어리즘’ 어때요?」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임에도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공모전에 참여한 중학생(배건희/부산 분포중학교)에게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격려하고자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은 전국합동위령제와 국외추도순례 등 향후 재단 목적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자막 삽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UCC공모전의 주요 성과는 지금까지 재단 사업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학생층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향후 UCC 외에도 웹툰 등 다양한 공모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상부분	작품명	수상자
대상	강제동원의 아픔이 서린 제주 ‘다크투어리즘’ 어때요?	박주영
최우수상	할아버지와 탁주	박수연·장다연
	재	전희진
우수상	11살 순난이의 그림일기	천예린
	나에겐 아직 봄이 오지 않았소	최한비
	공대생이 만드는 한국인 위령탑	이임표·이지호·이동호
특별상	발에 박힌 못	배건희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인” 특별기획전시 죽음의 태국-버마 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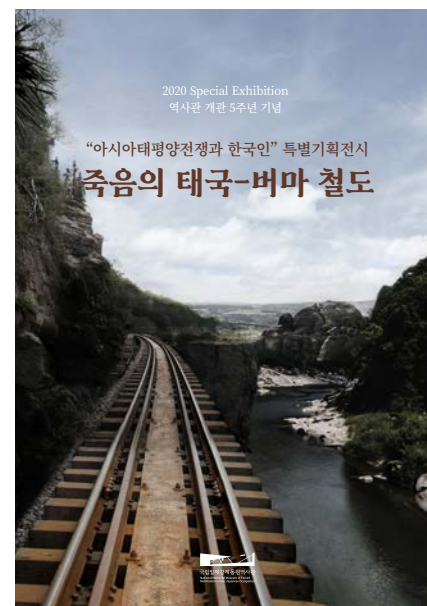
글 김석원, 김정원 | 사진 장민성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2020년도 특별전으로 ‘콰이강의 다리’, ‘헬파이어패스(지옥불고개)’ 등으로 유명한 ‘태국-버마 철도’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준비하였다. 일제에 의해 연합군 포로 약 60,000명, 아시아 노무자 약 180,000명이 동원된 ‘태국버마 철도’ 건설은 한마디로 ‘죽음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였다.

1940년 이전까지 조용한 태국의 시골마을인 칸차나부리는, 일제의 버마 침략을 계기로 연합군 포로와 아시아 노무자들이 유입되었고, 이들은 일제의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건설 현장에 동원되었다. 안타깝게도 철도건설 현장에서 100,000명이 영양실조 · 과로 · 질병 · 사고 등으로 희생되었고, 바로 이 곳, 칸차나부리에 잠들어 있다.

현재 태국정부와 영연방 국가들은 일제의 만행과 전쟁 희생자를 기억하고자 기념시설을 조성하여 추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 침략의 잔재를 고스란히 보존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개관 5주년 기획전 기념 포스터



칸차나부리의
아픈 역사 속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있다.



추진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전 세계와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칸차나부리의 아픈 역사 속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있다.

1942년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은 일제의 ‘태국-버마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되었다. 철도건설 기간에 조선인 포로감시원은 일제의 강압과 폭력, 그리고 연합군 포로의 비난 사이에서 고통 받았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전범재판에서 연합군 포로에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희생되었다.

이번 전시는 ‘태국-버마 철도’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에 일제가 자행했던 노동력 착취와 포로 학대에 대해 확인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였으나 연합군 포로에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조선인 포로감시원의 비극적인 삶도 함께 알리고자 한다.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죽음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희생된 영령들에게 이번 전시를 바친다.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낮 12시, 오후 2시 ~ 4시(월요일 휴관)
※ 코로나19로 인한 부분개관으로 1일 2회 선착순 입장(회당 300명)
- 유의사항 : 출입 시 발열 검사, 방명록 기입, 마스크 착용 필수
- 관람 및 주차 : 무료
- 관람문의 : 051-629-8600

2020년 국제학술대회 ‘일제 강제동원의 국제적 비교’ 개최

- 조선인 포로감시원 실태 재조명 -

글 정주희 | 사진 장민성



재단은 지난 5월 28일 오후 1시 ENA스위트호텔 3층 R.ENA 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학술대회 ‘일제 강제동원의 국제적 비교: 한국·일본·태국·미얀마·필리핀·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1부 주제발표(좌장: 김광열 광운대학교 교수)와 2부 지정토론(좌장: 김민영 군산대학교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일본 학자 2명과 한국 학자 3명이, 토론은 한국 학자 5명이 맡아 진행했다.

학술대회에는 김용덕 재단 이사장, 정구창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강제동원 관련 전문가, 일제 강제동원 유족,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덕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여전히 전범이라는 오명을 안고 우리의 기억에서 다시 잊히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어떻게 동원되었고, 전쟁이라는 상황은 이들을 어떻게 전범으로 만들었는지 국제 사회에 재조명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알리는 과정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나아가 일제에 의해 고통 받은 모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구창 단장은

축사에서 “조선인 포로감시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조선인 포로감시원의 강제동원 피해 실태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행사장 1층에서 방문객들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력 등을 확인 하고, 방문객들에게 역학조사를 대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3층 행사장 출입 시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여 호텔 투숙객들과 구분했다. 행사 진행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주기적으로 장내 환기를 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아리미츠 켄, 오카다 타이헤이 교수(일본 거주)와 토론을 맡은 김정남 교수(특별재난지역 대구 거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다.



< 학술대회 주제별 주요내용 >

주제 1) 조선인 군인군속의 전후 보상 문제의 경과 및 현재

아리미츠 켄 (有光 健,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연구소 초빙연구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및 소송에 대하여 일본 측은 행정→사법→입법 순서로 책임을 전가. 일본 내에서 「외국 국적 BC급 전범에 대한 보상 법안」 등 수많은 보상 관련 법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한국에 넘겨 졌다며 입법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 협정을 넘어 일제의 식민지배가 부당했다는 대한민국 헌법 기본정신에 입각해 내려짐. 이는 한국으로부터 일정 조치를 받은 피해자들도 일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을 뜻함. 앞으로 한국 법정의 추가 판결이 주목됨.

주제 2) 일제하 조선인 포로감시원의 동원실태와 생활상

강정숙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1941년 말, 일본군은 단기간에 늘어난 10여만 명의 연합군 포로 관리가 필요. 이 시기는 조선인들이 지원병, 징용 등으로 계속 동원되던 시기, 이에 일부 조선인들은 덜 위험하고 조건이 낫다고 판단하여 포로감시원으로 지원. 하지만 타 동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포로감시원들은 고된 훈련으로 불만을 갖게 됐고, 다수의 이탈자가 생기기도 함. 민간인이 중심이 된 억류소 등에 배치된 포로감시원들은 소규모 노동이 요구되었지만, 연합군 포로가 있는 수용소의 포로감시원은 도로, 철도건설 등에서 일본군의 목표치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하중을 받고 일부 가혹행위를 가하기도 함. 이는 이후 포로들의 불리한 증언으로 이어져 포로감시원들이 동원 피해자임에도 BC급 전범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음.

주제 3) 일본군의 태면철도 건설과 한국인 BC급 전범

김도형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태면철도 건설공사는 버마를 침공한 일본군의 보급로 확보를 위해 1942년 6월경부터 시작되어 다음 해인 1943년 10월 25일 완공. 이 철도를 완성하기까지

약 1만 3천여 명의 연합군 포로와 노무자들이 사망. 건설 현장엔 정글과 암석지대 등이 많은 난공사 지역임에도 장비 없이 노동력에만 의존해 건설을 진행. 또한 병원·숙소·식량 등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무자들은 각종 질병 및 전염병에 취약. 심지어 일본군의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해 처벌,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기에 태면철도는 ‘죽음의 철도’로 불림.

주제 4) 필리핀 비사야 지방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오카다 타이헤이

(岡田泰平, 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필리핀 전투는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 중 하나. 특히 비사야 지방에서는 항복한 미군의 게릴라 조직이 계속 남아 있었고, 조직 간 내분이 심했음. 일본군은 이 지역에서 게릴라들을 향한 전술로써 성폭력을 이용. 이후 비사야 지방을 포함한 필리핀 전투의 많은 성폭력 사건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 재판을 통해 전시 상황과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전시 성폭력 모델화에 기여함.

주제 5) 일제말기 인도네시아 조선인 포로감시원 현황과 반일활동

유병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일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20여 만명의 연합군 포로를 관리하기 위해 조선인과 대만인들로 구성된 포로관리 특종부대를 설치함. 1942년, 약 1400여 명의 조선인 포로감시원이 인도네시아 자바에 배치되었고, 1944년 이들 중 10여 명이 중심이 되어 항일 비밀결사 ‘고려독립청년당’을 창당함. 이들은 암바라와 포로수용소에서 일본인 군인 등 12명을 사살했고, 이는 자바 최초의 정치적, 이념적 항일 무장투쟁으로 평가받고 있음.

* 지면 관계상 발표자의 원고와 발표내용, 토론자의 원고와 토론내용을 모두 실지 못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홈페이지(<https://www.ilje.or.kr>, 자료마당-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슨트 소식

글·사진 조나은



지난 6월 6일 역사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도슨트(유현대님, 김은경님)가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명록 작성을 안내하고 있다.

5월 도슨트 월례회의 개최

지난 5월 30일, 코로나 사태 후 닷달 만에 도슨트 월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박철규 역사관장과 담당 직원도 참석하였다. 담당 직원은 올해 1월 입사한 신입 직원으로, 도슨트 업무 지원을 맡고 난 직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사가 무기한 미뤄졌었다. 첫 만남에 기쁨을 표하며 “도슨트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날 회의는 도슨트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약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1.8m 길이 책상 1인 착석, 책상 간 간격 유지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회의를 진행하였다. 도슨트 월례 회의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역사관 멀티미디어실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관람접수처 운영 지원

역사관의 주말 및 공휴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슨트회가 발 벗고 나섰다. 역사관은 지난 5월 12일부터 제한적 개관을 시행하며 1층 정문에 임시관람접수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도슨트회가 지원해주는 것. 도슨트회는 주말 및 공휴일을 맞아 역사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밝은 인사로 맞이한 후 운영시간, 시설물 사용 제한 등 주요 통제사항에 대해 친절히 안내한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19일 개최된 역사관 위폐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방문객 안내 등 업무도 지원했다. 역사관은 전시해설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도슨트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관람객 분들이 내 전시해설을 듣고 ‘역사관에 더 머물고 싶다’, ‘또 오고 싶다’, 그리고 ‘내게 다시 전시해설을 듣고 싶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 제3기 도슨트 김수광 님 –

글 장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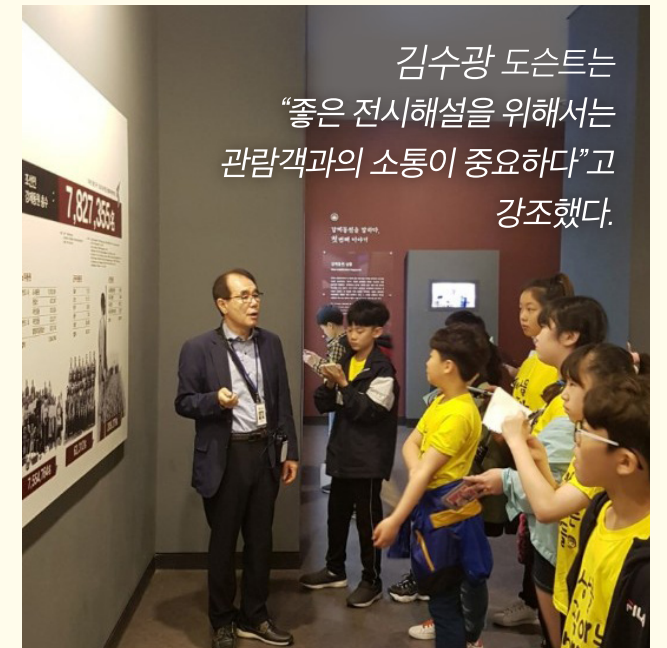
김수광(66) 도슨트는 40년간 교직생활을 한 베테랑 교육자이다. 1976년 울산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고, 2016년 특수학교인 울산혜인학교 교장으로 9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임했다. 퇴임 후에는 역사관 도슨트뿐 아니라, 부산과학체험관 도슨트,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멘토, 부산 휴먼북도서관 휴먼북, 통일부 소속 통일교육위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전문강사,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소통과 창조적 리더십교육 전문강사, 자존감을 키우는 자녀교육 전문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직도 교육하는 게 설렌다고 말하는 그에게 도슨트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역사관 도슨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6년 8월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고민하는 중에 역사관에서 도슨트를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화유산해설사(2000년 시작)로도 활동을 해왔기에 거부감 없이 시작했다. 2018년 도슨트 모집에 합격해 양성교육, 해설교육 과정을 거쳤고 2019년에 도슨트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Q 역사관 도슨트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화는?

지난해 6월 27일 목요일, 당시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을 한다. 전시해설을 요청한 분들은 사할린 동포 3, 4세로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강제이주 되었던 피해자의 후손들이었다. 그분들은 전시해설을 들으며 눈물도 흘렸다. 또 당시 조선인 남성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전환 배치되어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기도 해 도슨트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인연으로 올해 8월 사할린을 방문해 그분들과 재회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음해로 약속을 미루었다. 부디 2021년에는 민족의 한이 서린 사할린의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에서 그분들과 재회하길 간절히 바란다.

Q 미래의 역사관 도슨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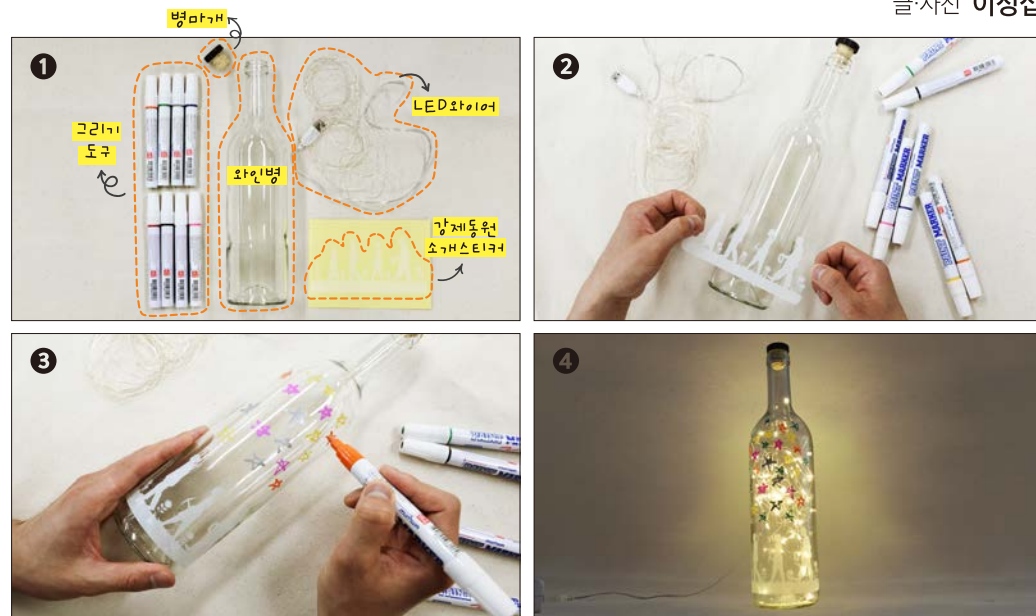
좋은 전시해설을 위해서는 관람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배경지식이 필요하고, 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맞춤형 해설로 신뢰를 얻는다. 이러한 신뢰가 결국 관람객과 소통의 열쇠가 되어 좋은 전시해설로 이어질 것이다.

신상출시!?

체험교육 '별 헤는 밤' 10월 운영

일제강제동원 4가지 유형 주제로
희생자 추도하는 등(燈) 만들기 체험

글·사진 이정섭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해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이해하고 만들기도 할 수 있는 '별 헤는 밤'이라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1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인 노무동원, 군인동원, 군무원동원, 성(性)동원에 대해 알아보고, 와인병으로 등(燈)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병 속에 담긴 등(燈)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탄광, 전쟁터, 비행장, 위안소 등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 별이 된 강제동원 희생자를 상징한다. 또 피해자들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고향을 생각하며 바라봤을 그 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병에는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을 상징화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나머지 여백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꾸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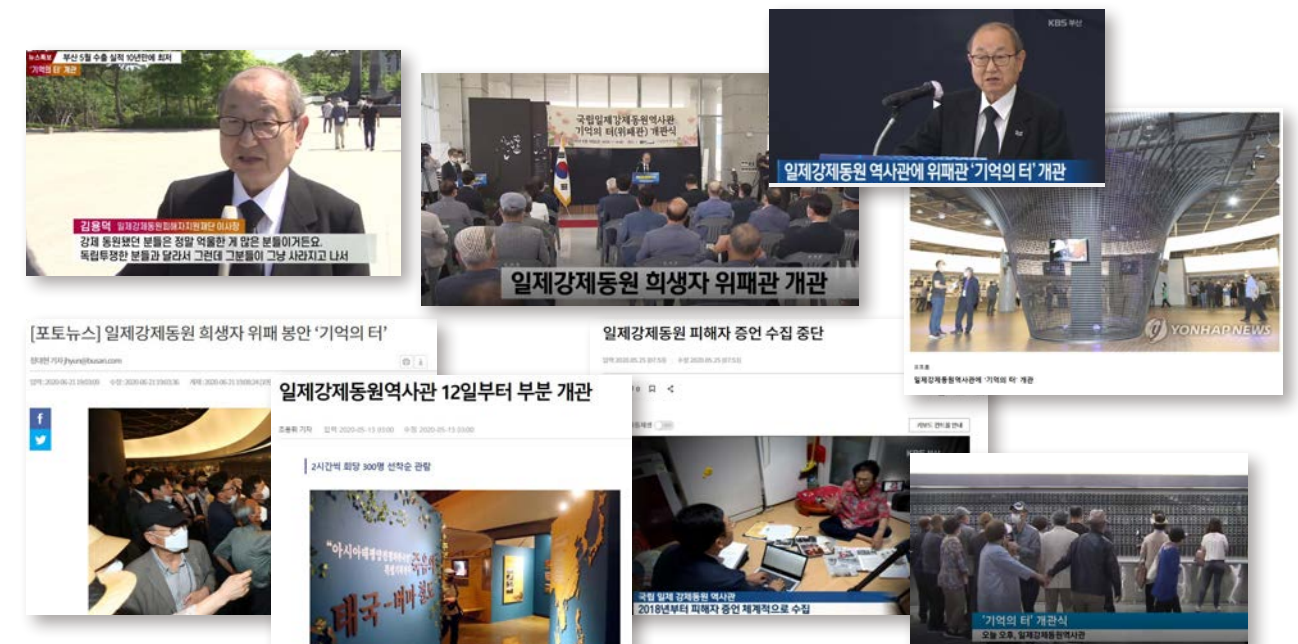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들은 비록 프로그램의 세세한 교육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을 상징하는 스티커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며낸 등을 보며 '강제동원에는 4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역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찾아가는 교육과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별 헤는 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10월부터 운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 신청은 역사관 홈페이지(<https://museum.ilje.or.kr>)에서 가능하며,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FoMo News



• 일제강제동원역사관, 12일부터 재개관
- 뉴시스 2020.05.11.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12일부터 재개관+기획전 개막
- 국제뉴스 2020.05.12.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12일 재개관
- 국제신문 2020.05.12.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재개관
- 부산일보 2020.05.12.

• 일제강제동원역사관 12일부터 부분 개관
- 동아일보 2020.05.13.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수집 중단...
“얼마 안남았다” - KBS 2020.05.24.

• 강제동원역사관 빈 사무실 내주자,
인력 지원으로 화답한 남구 - 국제신문 2020.06.15.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문학 특강’ 27일 첫 강좌 - 뉴시스 2020.06.16.

• 일제강제동원역사관“6월부터
‘인문학의 향연’ 펼친다” - 국제뉴스 2020.06.16.

• 부산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공간
‘기억의 터’ 개관 - 연합뉴스 2020.06.19.

• 김석준 부산교육감,
위패관 ‘기억의 터’ 개관 축하
- 국제뉴스 2020.06.19.

• ‘강제동원 없었다’는 일본 꾸짖는 815명 위패
- 오마이뉴스 2020.0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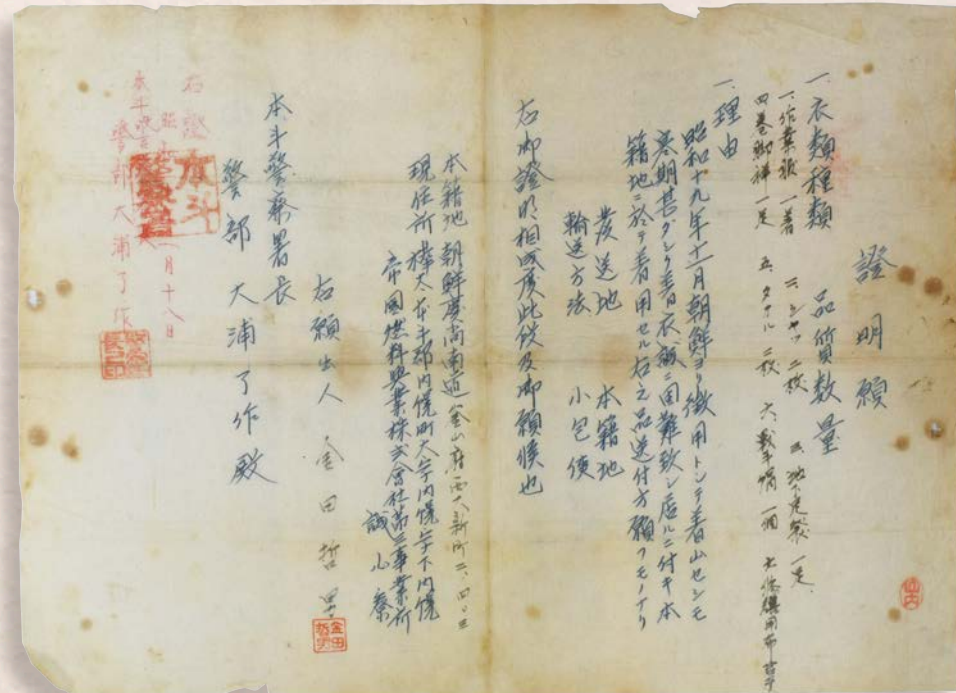
• 위패관 둘러보는 윤종인 행안부 차관
- 뉴스1 2020.06.19.

• ‘기억의 터(위패관)’ 개관식 참석한 윤종인 차관
- 뉴시스 2020.06.19.

•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위패 봉안 ‘기억의 터’
- 부산일보 2020.06.21.

• [부산]일제강제동원희생자 닛 기리는
기억의 터 마련 - SK브로드밴드 2020.06.22.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증자 김수웅 _ 의류송부증명원(2019년 기증)

가라후토(사할린) 나이호로 탄광으로 강제동원 된 피해자 故김규철이 겨울철에 입기 위한 의복을 본적지에 요청하는 문서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노무자, 군인, 군무원, 여성)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문서, 사진, 편지, 무기, 군복 등 의류)
- 문의처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학예연구부 ☎ 051-629-8615

※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피해자의 기록을 역사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기집 출판



故 장윤만 님 수기집 (태평양전쟁실기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료 출판

- 출판대상 : 강제동원 피해자의 수기집, 체험집 등 원본 사료류
- 진행절차 : 피해자/유족 출판 신청 → 발간위원회 심사 → 원고작성·해제 → 출판
- 문의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 02) 721-1825

※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과 기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수집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 방문 인터뷰
- 문 의 처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교육홍보부 ☎ 051) 629-8634

※ 피해 생존자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